

잡아함69. 기도

날짜: 2월 25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674>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마땅히 ‘몸의 쌓여 모임으로 나아가는 길[有身集趣道]’과 또 ‘몸의 쌓여 모임을 소멸시키는 길[有身集滅道]’을 설명하리라.

어떤 것이 몸의 쌓여 모임으로 나아가는 길인가? 어리석고 법문을 듣지 못한 범부들은 색의 쌓여 모임과 색의 소멸과 색에 맛들임과 색의 재앙과 색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색을 즐거워하고, 색을 찬탄하며, 색에 집착하고, 색에 머무른다. 색을 즐거워하고 색을 찬탄하며 색에 집착하고 색에 머무르기 때문에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취한다.

취함[取]을 인연하여 존재가 있게 되고, 존재[有]를 인연하여 태어남이 있게 되며, 태어남[生]을 인연하여 늙음·병듦·죽음·근심·슬픔·괴로움·번민이 있게 되나니,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생기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나니, 이것을 몸의 쌓여 모임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하느니라. 비구들아, 몸의 쌓여 모임으로 나가는 길은 곧 괴로움의 발생으로 나아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어떤 것이 몸의 쌓여 모임을 소멸시키는 길인가? 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색과 색의 쌓여 모임과 색의 소멸과 색에 맛들임과 색의 재앙과 색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안다.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에 색을 즐거워하지 않고, 찬탄하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다. 즐거워하지 않고 찬탄하지 않으며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 색에 대한 애욕과 즐거움이 소멸한다.

애욕과 즐거움이 소멸하면 곧 취함이 소멸하고, 취함이 소멸하면 곧 존재가 소멸하며, 존재가 소멸하면 곧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병듦·죽음·근심·슬픔·괴로움·번민의 모든 것이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소멸하느니라.

색과 같이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나니, 이것을 몸의 쌓여 모임을 소멸시키는 길이라 하느니라. 몸의 쌓여 모임을 소멸시키는 길은 곧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니라. 그러므로 몸의 쌓여 모임을 소멸시키는 길이라 말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밟들어 행하였다.